

PD수첩 무죄 판결

法亂

강기갑 무죄 전교조 무죄 광우병 무죄 保-革 전면전 양상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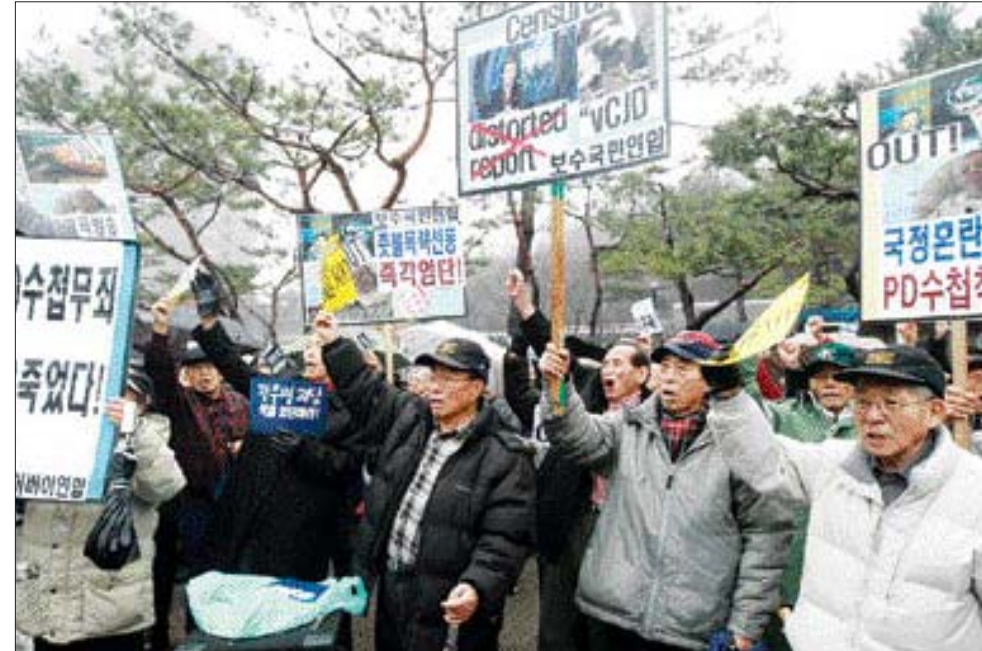
이에 따라 PD수첩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벼랑끝대치' 상황으로 흐르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대해 무조건 사법부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PD수첩 조능희 책임피디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제작진, 변호사들과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PD수첩 무죄판결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PD수첩 무죄판결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내용 과장 됐지만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법원 무죄판결 근거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라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여야·청와대 반응

20일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여권과 야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與 “법원 이념 편향” 野 “사필귀정” 靑 “침묵으로 답변”

여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의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당혹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판결을 계기로 언론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라고 호평했으며 민주노동당 유위영 대변인도 "사실에 기초해 상식과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기갑 무죄 판결 강진 출신 이동연 판사 신변 보호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친구가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Advertisement for FURSYS, TEEMS, and iloom, featuring a large '최치' logo and a photograph of a building.